



다도의 본산 해남 대흥사



정 재 훈

〈 문화재발굴조사사업단장 · 전 문화재관리국장 〉

해남 대흥사(大興寺)는 경승지(명승 제4호)인 대둔산(두륜산)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 대둔산(672m)의 두륜봉, 도솔봉 등은 규암과 반암으로 구성된 기암절벽들로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 산봉우리에 오르면 푸른 남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수량이 풍부한 계곡에는 버들치와 은어 등 신선한 물고기가 살고 있으며 골짜기에는 동백나무, 단풍나무, 졸참나무 등 군락이 연결되어 수림이 울창하다. 이채로

운 비자나무, 차나무 등과 난대림에 핀 동백꽃을 보면 정훈(丁薰)의 시「동백」이 생각난다.

백설이 눈부신 하늘한 모서리
다흥으로 불이 붙는다.
차가울수록 사모치는 정화(情火)
그 뒤를 사모하기에
이 깊은 겨울에 애태워 피는가.

숲 속에는 솔새, 박새, 파랑새, 꿩꼬리 등이 날아다니며 고요한 산의 정적을 깨고 있다. 서산대사는 모향산 원적암(圓寂庵)에서

85세로 입적하였는데, 유품을 두류산 대홍사에 전할 것을 유언하면서 두류산은 “기화이초(奇花異草)가 아름답고 골이 깊고 그윽하여 만세토록 훼손되지 아니할 곳”이라 하였다.

대홍사는 몇 가지 위대한 정신의 터전이다.

첫째, 당시 선(禪), 교(敎), 양종의 대립을 지양하기 위한 서산대사의 선교합일(禪敎合一) 사상이 깃든 곳이다. 그가 집필한 『선가귀감(禪家龜鑑)』과 『선교결(禪敎訣)』에 보면 “선도 교도 모두 부처님의 법이다. 그러나 선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면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교란 유언(有言)에서 무언(無言)에 이르는 길이요, 선

은 무언에서부터 무언으로 가는 길이다. 따라서 선과 교는 타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수행방법이다”라고 했다.

그는 염불을 중시하여 「아미타불탱발(阿彌陀佛幀跋)」에 “염불에는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입으로 외는 것이요, 둘째는 생각으로 그리는 것이며, 셋째는 관상(觀相)하는 것이고 넷째는 실상(實相)이다”라고 했다. 실상은 곧 선의 경지와 같은 것이다.

서산대사의 선교합일 정신은 불어(佛語)는 입문이요 그 입문을 거쳐 참 불자(佛子)는 불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고, 교와 선을 겸하여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는 좌선(坐禪)을 통해 견성(見性)을 이룩하려는 한국 불교의 전통을 확립하게 했다.

둘째, 한국 불교의 구국정신의 본산이다. 대홍사에는 1669년 조선

▼ 동백꽃이 피어있는 대홍사 전경



왕조에 의해 유교식 영당인 표충사(表忠祠)가 건립되었다. 이 사당에는 임진왜란 때 승장인 서산(西山), 사명(四溟), 처영(處英)의 영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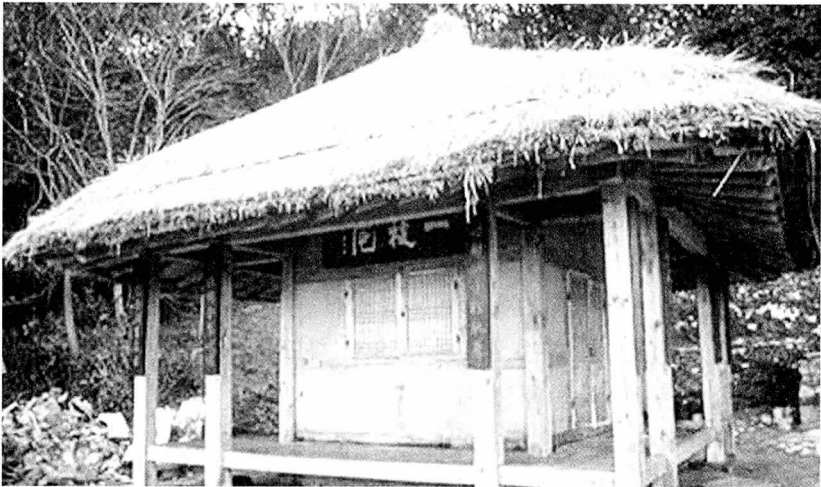
표충사 현판은 정조의 친필이며, 이 사당의 제사는 봄 가을에 국가에서 직접 올렸다.

한국 불교에 있어서 호국정신은 「인왕호국반야경(仁王護國般若經)」 등에 근거하고 있지만 옛 스님들은 나라가 위급할 때 구국의 길에 생명을 초개같이 던졌던 것이다.

초의선사가 심은 영산홍과 매화

해인사 묘길상탑지에 보이는 신라말의 승군을 시작으로 고려 예종 때는 여진족의 침략에 승군으로 대처했고, 1232년 몽고침략 때 처인성(處仁城)의 승장 김윤후(金允侯)는 몽구군의 총사령관인 살례탑을 사살했던 것이다. 1592년 임진왜란 때는 영규대사가 이끄는 승군이 왜군에게 유린된 청주성을 최초로 탈환했으며, 평양성 탈환의 선봉에 서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것은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이끄는 5천의 승군이

▼ 초의선사가 차를 끓이며 동다송을 읊었다는 대흥사 일지암



었다.

권울 장군이 행주대첩을 이룰 때 방어하기 어려운 서북쪽 능선을 맡아 7차에 걸친 격렬한 왜군의 공격을 막아 필사항전한 것은 처영이 거느리는 승군이었던 것이다.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불교의 이념으로 승첩을 이루고도 공명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던 승군은 불교를 배척한 조선조의 유교정책 속에서도 나라를 위한 구국의 길에서는 섣다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초개같이 던졌던 것이다.

셋째, 초의선사(草衣禪師)의 다도(茶道)의 본산이다. 한구에 차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828년 신라 흥덕왕 때 대림이 중국에서 차 종자를 들여와 지리산에 심은 이후이다. 초의(1786~1866)는 두륜산에 들어와 일지암(一枝庵)을 짓고 40여년을 차도삼매(茶道三昧)에 들어지(止), 관(觀)에 힘쓴 불교와 유학에 능통한 학승(學僧)이었다. 지란 일체의 경계를 끊어버리고 조금도 분별하는 바 없는

것을 뜻하며, 관이란 세상의 만물이 지니는 본질적 의미를 분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초의는 현실적 생활에서 긍정적인 진리를 찾고자 하였다. 그는 다산(茶山) 정약용이나 추사(秋史) 김정희와도 많은 교유가 있었다. 초의가 쓴 『동다송(東茶頌)』과 『다신전(茶神傳)』은 한국 다도에 관한 대표적인 책이다. 『동다송』은 정조의 딸 숙선옹주의 남편인 홍현주(洪顯周)가 청탁하여 쓴 글로 한국의 차(茶)를 예찬하고 있다.

『다신전』은 차를 채취하는 데서 시작하여 제조, 감별, 물의 선택, 끓이는 방법, 차의 향기, 맛, 색과 차 마시는 아취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차의 모체가 되는 물과 물의 신이 되는 차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차의 신기(神氣)가 건설하고 더불어 물이 신령스러우면 이것으로 다도에 다 통하게 된다”고 하였다.

『동다송』 말미에서 그는 다인(茶人)의 멋을 다음과 같은 시



로 읊었다.

옥화차 한잔을 기울이니 거드랑이
에 술술 바람이 일어 목은 가벼이 하
늘을 나네. 밝은 달을 좇불삼고 또한
벗을 삼아 흰구름을 자리하고 산허리
를 병풍 삼으니, 대나무 젓대소리 솔
바람 소리 시원도 해라. 기골이 청신
해지고 마음이 맑아 온다. 흰구름 밝
은 달을 손님으로 모시고 홀로 차를
마시니 이보다 더한 경지가 없구나.

지금 대흥사 뜰에는 초의가
심은 영산홍과 매화가 고운 꽃
을 피우고 있다.

사명대사의 유품이 있는 유물 전시관

대흥사의 창건 역사를 기록으로
는 『죽미기(竹迷記)』, 『만일암고
기(挽日庵古記)』 등이 있으나 신
빙성이 없다. 초의 등이 편집, 교
정한 『대둔산지(大屯山誌)』가
1823년 간행되었는데 이것이 가
장 충실하다.

확실한 창건연대는 불확실하지
만 웅진전 옆에 통일신라 3층석
탑(보물 제320호)이 남아 있어
신라말에 창건된 사찰임을 입증

하고 있다.

대흥사가 임진왜란 이전에는 그리 큰 절이 아니었다. 구국의 승장인 서산대사의 공로에 의해 그의 유품이 이 절에 보존되고 표충사가 세워지면서 사찰이 번창하게 되었고, 초의선사의 법력(法力)에 의해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다.

대웅보전(大雄寶殿)은 1667년에 건립된 것인데, 현관은 당대 명필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의 글씨이다. 백설당에는 '무량수각(無量壽閣)'이라는 추사의 편액이 남아 있다. 표충사 정면에 있는 의중당(義重堂)은 당시 6개 군의 군수가 봄, 가을 제사 때 가지고 온 제물을 차리던 집이다.

표충사에는 정조가 하사한 6폭의 금병풍(金屏風)이 보존되어 있다. 천불전(千佛殿)은 1813년에 건립된 건물로 그 속에는 6년에 걸쳐 만들었다는 천불이 모셔져 있다.

근년에 건립한 유물전시관에는 사명대사의 유품들과 탑산사동종(塔山寺銅鐘 : 보물 제88호) 등이

전시되어 있다. 대광명전은 1841년 건립된 불전으로 초의가 단청을 했으며, 그가 그린 관음상이 남아 있다. 대흥사 절 입구에는 사명대사 부도 등 많은 부도가 담안에 모셔져 있다.

대흥사에 소속된 암자로는 북미륵암이 유명하다. 북암에는 1754년 중건한 마애불 전실(前室)이 있고, 그 안에 높이 4.2m에 이르는 거대한 고려시대 마애여래좌상(보물 제48호)이 있다. 또 고려시대 3층석탑(보물 제301호)이 마당가에 서 있다. 이외에 두륜봉 밑의 남미륵암 터에는 음각된 불상이 남아 있다.

만일암 터에는 고려시대 5층석탑이 서 있고 진불암(眞佛庵)에는 특이한 목조 16나한상이 봉안되어 있다.

절 입구에서 들어가는 청신암(淸神庵)에는 여승들이 사는데, 조선후기의 범종 하나가 보존되어 있다. ㄸ